



멋으로
표현하는
꿈과 환상



‘제9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3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9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성황리 열렸다.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최, 전주매일신문사·JJC전북지방자치 TV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조봉성 대표를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1~2부로 나눠 열렸다. 1부에서는 식전행사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축하공연에 이어 본격적으로 참가자들의 미술 경연 및 시상식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명웅 한국동아리연맹 사무총장 및 삼임이사, 김영재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소경희 (사)국제문화예술협회 전임강사가 심사위원으로 나서 청소년들의 미술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내며 긍정적인 심사를 했다.

김승곤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갖고 있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꿈을 키워가는 잔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은 매직제이 소속 이승준군이 차지했다.

이어 최우수상에 매직제이 소속 이승연군, 우수상에 구로청소년수련관 미술동아리 드라마 소속 민준서군, 특별상에 개인으로 참여한 최진호군, 장려상에 원광중 김시준군, 인기상에 매직제이 소속 이도영군이 각각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이승준군은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나에게 있어 이번이 마지막 청소년 대회였다.”며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것은 소속 팀인 매직제이의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더 배워서 더 큰무대에 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봉성 대표는 대회를 통해 “미술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원전 5000년 경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도 발견 될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며 “미술인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미술장르 개발에 한층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프로마술사의 열띤 축하공연



멋진 묘기를 선보이고 있는 참가자들.



▶ 대상 - 이승주



▶ 최우수상 - 이승연



▶ 우수상 - 민준서



▶ 특별상 - 최진호



▶ 장려상 - 김시준



▶ 인기상 - 이도영

